

광주발전연 6월까지 법인 신설

■ 광전발전 분리 결정

광주전남발전연구원(광전발전)이 14일 이사회를 열고 광주·전남 분리를 결정함에 따라 광전발전은 오는 6월 말까지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으로 각각 분리된다. 광전발전 이사회는 이날 정기이사회를 개최, 광전발전 분리를 표결처리 해 13(찬성) 대 2(반대) 대 1(기권)로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이사회가 분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단체 대표인 윤장현 이사와 김중현 이사가 사전 논의 및 속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언급하며 찬성 유보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가 열린 광전발전 회의실 앞에는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시·도 상생발전을 위해 분리 반대' '사전 속의 없는 즉흥적 의사결정,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사회가 입장할 때 마다 '광전발전 분리 반대'를 외치는 등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문을 연 이후, 1995년 6월 광주와 통합운영을 시작한 광전발전이 12년 만에 다시 시·도로 분리되게 됐다.

광전발전 분리에 따라 전남도는 현 광전발전 법인을 그대로 승계해 전남발전연구원을 개설하게 되며, 광주시는 법인 신설을 통해 광주발전연구원을 발족시키게 된다. 광주시는 광전발전 전체 출연금 230억원 가운데 시 부담 80억원을 기반으로 별도의 기금을 추가해 광주발전연구원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14일 오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회의실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광전발전 분리를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 법인은 전남도가 승계...이사회 가결 연구원 9명 진로 확정안돼 논란 일 듯

이와 함께 양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연구원 기획연구실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연구원 분리 추진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설 연구원 관련 인력 및 지분은 설립 등기와 동시에 일괄 인계·인수를 원칙으로 하고, 각종 연구 자료와 비품 등은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달 내에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방안을 확정함과 동시에 설립위원(시의회 1명, 공무원 1명, 시민 1명 등 총 3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어 시의회 보고를 거쳐 4~5월에 연구원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한 뒤, 5월 안에 발기인(20명 정도) 구성 및 총회를 갖고 법인 설립 허가신청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한 원장과 인력채용 및 사무실 확보를 마친 뒤 6월 말에 광주발전연구원을 개원할 방침이다.

전남도 3~4월에 정관변경과 조례개정 등을 거쳐 5월말에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6월 말에 새롭게 개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

께 시·도는 연구원의 근무처를 전공, 연구실적 및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해 고용을 승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3명의 연구원 중 해양과 농촌분야 등 4명을 제외한 9명의 연구원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로 발족할 광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은 5명선으로 예정돼 있어 진로가 미정인 9명 가운데 4명의 배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와 전남은 연구원 분리 후에도 올 말까지는 현재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추후 별도의 사무실확보를 위한 교육원 신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특별기고



김흥규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의 긴장은 고조됐고 국제사회는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 들었다. 다행히도 2·13합의와 북·미간 대화로 긴장은 다소 완화됐고, 미국이나 북한 모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 북한 핵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은 '핵'이라는 카드를 통해 북한이 안고 있는 핵심적 문제, 즉 정권의 안전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외부의 정치·경제적 지원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북한 핵문제는 언제든 악화될 소지가 있다.

북한은 핵실험 직후 미국의 핵전문가들을 초빙, 북한이 국제사회 압력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식량사정에 여유가 있으며 정치·군사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 했지만 북한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은 핵실험 직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화해 왔지만 북한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을 배제한 채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와 관련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주변 각국과 평소 외교 및 전략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관련한 중·미간 이해관계를 반드시 대립적으로 가정할 필요는 없으며, 북한 급변사태의 경우 중국이 북한을 지배할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미리부터 전제할 필요도 없다. 이는 실제로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한반도 급변사태와 관련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려와는 달리 보다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개입을, 양자 보다는 다자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와 협력의 여지가

北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 상존 한국 주도권 잡을 대책 급하다

했다는 설도 있다. 아직까지 후계자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 사정은 복잡하고, 경제의 선순환구조는 이미 파괴돼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경제체제를 재건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된다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가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실제되고, 주변 각국의 입장도 상황논리에 종속된다는 것을 전제할 때,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주변 각국은 한반도의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추구한다는 것이 일반적 정설이며, 급변 사태 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주권이 우선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복합적 상황 속에서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붕괴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기 전 한국의 외교는 우선,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하고, 한국은 주변 강대국에 적대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하지 않으며,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특수 입장과 주도권을 주장하고,

충분히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가 가져올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서 외교적 노력 이외에도 다방면을 갖춘 경제체제를 재건할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무기 억지 및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물리력의 근간이 될 것이며 현재 한국의 대응책도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자주적인 국방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동시에 북한 주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급변 사태 시 초래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방안일 것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북한의 붕괴나 급변 사태가 우리의 안전과 삶의 질에 초래할 비용을 고려,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소하고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다. 2·13합의는 북한 역시 한반도의 긴장이 북한 정권과 체제에 유리할 것 없다는 상황판단에 기초하고 있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 및 주변 각국에게도 공동의 이익을 안겨주는 일이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문화예술인 724명 강운태 지지 선언

'빛나는 대한민국연대' 문화예술인 자문위원회 창립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인 724명이 14일 오후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연대'(대표 강운태 전 의원) 문화예술인 자문위원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강봉규 전 광주에 총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조기경(공예)·김명주(디자인)·문순태(문학)·서봉한(서양화)·김종(시)·박채욱(음악)·김광복(국악)·박행보(한국화)·김승렬(사진)·이규형(서예)·박윤모(연극)·김영신(조각)씨 등이 장려별 책임자로 부위원장에 각각 위촉됐다.

이들은 이날 창립 선언문에서 "국민이 창조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통합과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광주비엔날레 창설 등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강운태 대표가 그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빛나는 대한민국연대이 철학과 비전에 동의하면서 문화예술정책 개발, 봉사활동, 인제개발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강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문화 경제시대는 단순히 한류를 확산하고 문화 산업을 진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 문화가 부가되는 것을 뜻한다"며 "이런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운태 전 의원을 지지하는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인들이 14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문화예술인 자문위원회'를 창립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한편 강 대표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순천 궁전에식장 웨딩홀 4층에서 그동안의 국정 경험과 평소 품고 있었던 국가 경영의 비전과 정책 대안들을 정리한 '똑똑한 정부, 빛

나는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책을 출판 하는 기념회를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주)한국에텍 '07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 선정 740kw 확정

신재생에너지 정부 무상 보급보조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 발전효율: 17%
- 발전량: 1,200kWh/년
- 투자비용: 2,500만원
- 보급기간: 20년
- 보급비율: 100%

태양열온수·난방시스템

- 발전효율: 50%
- 발전량: 1,200kWh/년
- 투자비용: 2,500만원
- 보급기간: 20년
- 보급비율: 100%

내 집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자!

한국에텍

www.koretek.com